

IT-SoC 2004 & 차세대 PC 산업전시회 결과

국내의 시스템온칩(SoC) 및 차세대PC의 산업동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IT SoC 2004 및 차세대PC 산업 전시회'가 지난 10월 27일, 28일 양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막을 올렸다. 이와 관련, IT SoC Magazine 10월호에서는 'IT SoC 2004 및 차세대PC 산업 전시회'에 대한 소개를, 두 달이 지난 이번 호에서는 전시회 결과 보고 및 전시회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전시회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결과에 대한 보고뿐 아니라, 전시회에 참가했던 업체나 참관객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어떤 점들이 성과였으며 만족도는 어느 정도였는지, 어떤 점들이 개선해나가야 할 점인지에 대하여 되짚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이다. 이제부터 전시회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에 이어, 설문 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까지 이어나가도록 하겠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사라지는 비슷비슷한 IT 전시회. 그런 전시회들과는 달리, IT SoC 전시회는 2004년으로 4회째를 맞이하는 국내 유일의 'IT SoC 및 IP 전문 국제전시회'로 자기만의 색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전 전시회와 올해와의 가장 달라진 점으로는 IT SoC 및 IP 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시스템 업체 및 관련 바이어의 참관을 확대하기 위해, 차세대PC 산업전시회와 공동 개최되었다는 점과, 전시회 외에도 국제 컨퍼런스, Wearable 컴퓨터 패션쇼, 지능형 SoC 로봇 War, 비즈니스 상담회, 차세대PC 체험관의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함께 치러졌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그러면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 되었다는 'IT SoC 2004 및 차세대PC 산업 전시회'를 되돌아보며 주요모자를 살펴보자. 10월 27일 10시경. 정보통신부 차관을 비롯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원장, SoC협회 회장, 정보통신산업

협회 회장, 동부아남 사장, 매그나칩반도체 사장, LG전자(주) 멀티미디어 소장, 미국의 ARC, Xybernaut社 회장과 중국 보천 CTO 등 국내외 인사 15명이 VIP로 참석해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다.

참관객의 경우 1,000여명 정도였던 2003년도 전시회와는 달리, 이번 전시회에는 이틀간 7,500명(전자신문 보도내용)의 참관객이 찾아 일단 규모면에서 크게 성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OEX 그랜드 볼룸에서 44개 업체 및 기관이 참석하여 100개 부스의 규모로 치러졌으며, SoC분야와 차세대PC 분야의 부스 비율은 2:1정도였다. 매그나칩반도체, 동부아남, 코아로직 등을 비롯한 33개 업체·기관이 SoC 부스에 참여했으며, LG전자, 삼성전자, 미국 Xybernaut社 등 차세대PC 부스에 11개 업체·기관이 참여하여 SoC 및 부품 그리고 PDA, 스마트폰, HMD 등의 차세대PC 관련 정보단말기기 등을 선보였다. 또한 그동안 정보통신부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추진해 온 저전력 그래픽 SoC, 지상파 DMB 단말용 SoC 등 IT SoC분야의 연구개발성과와 손목시계형 차세대PC, 인체 매질 통신기술, 바이오 서츠,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PC 분야도 함께 전시되어 국내외 기술개발 수준을 기쁘게 볼 수 있었다.



'IT SoC 2004 및 차세대PC 산업 전시회' 개막식

비즈니스 상담회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중국의 대표 가전업체인 '하이얼'과 이동통신단말기 업체인 'TCL 이동통신'을 비롯해, '보천 수신', '콘카' 등 중국의 대표적 IT 기업들과 일본의 'MCM Japan', 터키의 'AZ-INT' 업체 관계자가 초청되었다. 여기에 국내 SoC 전문업체인 엠텍비전, 토마토 LSI 등 26개 업체가 비즈니스 미팅에 참가해 본격적인 대 중국 비즈니스 장을 마련했다. 집계된 바로는 비즈니스 상담회의 성과로 11월 중순 기준으로 100,000달러 규모의 계약이 3건 성사됐으며, 이외에도 600,000달러 규모의 43건의 비즈니스가 진행 중에 있다.

컨퍼런스&패널 토의

COEX 그랜드볼룸 2층 아셈홀에서 치러진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ARC International 및 Xybernaut社 CEO의 Keynote Speech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초청강연을 진행했다. 논문 발표의 경우 Mobile Communication, Wireless/Telematics, Home Network/Broadband Network, DTV/DMB/Multimedia, Post PC, Embedded S/W, Display/Image Sensr, IP/SoC Design Methodology, Robotics/AMS Design, IP Business의 분야에 구두 50편, 포스터 30편 등 80여 편이 채택되어 발표되었다. 최고 논문상은 "A capacitive fingerprint sensor with 32-bit microcontroller in CMOS technology"의 주제로 논문 발표를 한 연세대학교의 정승민 씨에게 수여

되었다. 또한 ETRI 최병건 씨의 논문인 "A Single Transistor Stack Direct-Conversion Mixer for Low-Voltage Low-Power Multi-Band Radios"에는 매그나칩상이 주어졌으며, IT SoC상은 경북대 이명진 씨와 한국해양대학교의 이인기 씨가 받았다. 이번 컨퍼런스에 채택된 논문들에 대해서는 국내 SCI급 저널인 ETRI저널에 게재될 기회도 주어졌다. 논문 발표 이외에도 "SoC 선진국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패널 토의가 이어졌다. 동부아남 송재인 상무가 '파운드리' 분야를, 팹텍&큐리텔 최기창 연구기획 실장이 '시스템업계'를, 신코엠 정성의 사장과 다반테크 정동철 전무가 '부품업계'를, IT SoC 사업단의 공진홍 단장이 '인력양성' 분야를 맡아 열띤 토론을 펼쳤다.

웨어러블 컴퓨터 패션쇼



'Wearable Computer Show'에 감격 출연한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COEX 그랜드 볼룸 1층 로비에서는 특히나 눈길을 끌었던 웨어러블 컴퓨터 패션쇼가 1일 3회 그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다. 웨어러블 컴퓨터 패션쇼는 미래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차세대PC 활용 다양한 상황연출을 보여주어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욱이 두 번째 날의 행사에는 정보통신부 장관이 방문을 하여, 즉흥적으로 무대에 올라 학생과 참관객들에게 웨어러블 컴퓨터를 착용하고 인



패션쇼의 한 장면

사를 하는 깜짝 이벤트도 열렸으며, 행사 이후 신문이나 언론, 인터넷에 웨어러블 컴퓨터 패션쇼에 대한 기사와 뉴스, 동영상 자료들이 연이어 보도되어, 차세대 PC 대국민 홍보 및 인식고취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또한 차세대PC 체험관과 전시관에서는 패션쇼에 나왔던 제품이나 기술들의 일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많은 인기를 끌었다.

SoC 로봇워

100여 팀이 예선전을 거쳐, 전시회 날에 16강전 본선경기가 치러진 '지능형·SoC 로봇워' 경기장 주변에는 경기가 있을 때마다 주위에 많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으며, 2족 태권로봇의 시연에도 언론 및 일반인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본선 경기 후 11월 5일에 열린 시상식에서 금상과 상금 200만원의 영광은 쟁쟁한 팀들을 물리치고 당당히 1위로 오른 COM's팀(광운대학교)에게 돌아갔다. 은상과 상금 100만원은 tech01(고려대학교)에, 동상과 상금 50만원은 battleDroid(고려대학교), Ms(서경대학교) 두 팀에 각각 수여되었으며, 그 외 8강에 진출한 네 팀인 EEI(이화여자대학교), Mirage(KAIST), ICU(ICU), POAM(부경대학교)에는 격려상이 주어졌다. 혈기 왕성한 젊은 두뇌들이 땀 흘려 이뤄낸 결과가 모두들 만족했으며, 로봇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경기가 끝난 후 뜻 깊은 대화였다며 감사의 글들이 올라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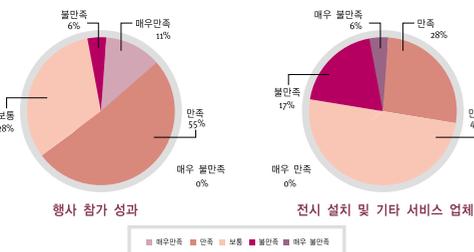
2족 태권 로봇 시연 (좌), SoC Robot War 2004 참가팀 (우)



전시회 설문조사 결과

여기까지 대외적인 결과 보고 및 성과보고는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직접 참가한 업체들의 소리를 반영하여 내실이 어땠는지에 대해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전시회 개최 후, SoC 관련 참가 업체들을 중심으로 IT SoC 협회(ITSa)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실질적인 전시회 성과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다. 설문조사는 크게 1. 행사 만족도 2. 참가 적정성 3. 차년도 참가 여부 세 가지 부문에서 실시되었다.

1. 행사 만족도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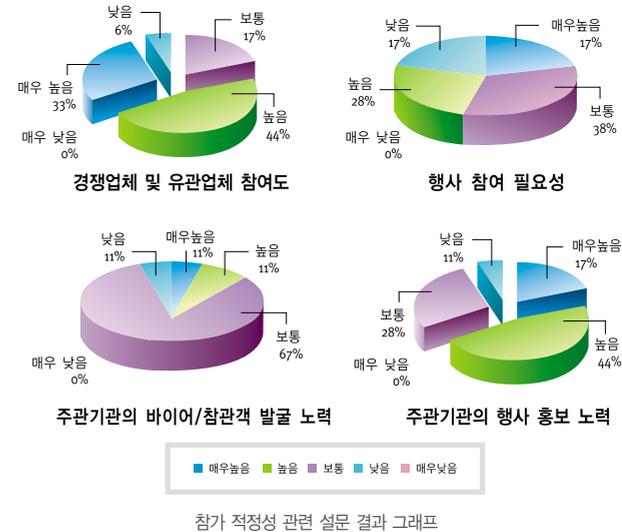


행사 만족도 관련 설문 결과 그래프 (행사 참가 성과, 전시 서비스 업체 만족도)

참가 성과에 대한 응답은 66%가 만족 이상의 응답으로 긍정적인 편이었다. 운영위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도 55%가 만족 이상의 응답을 보였으며, 행사 기간 및 시기에 대해서도 94%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전시 장치 및 부스 배치에 대해서는 83%가 보통 이상으로 평가하여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규모에 있어서는 다소 규모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전시 설치 및 서비스 업체에 대한 응답은 만족 이상이 28%에 불과하여 전시 대행업체의 선정 및 운영을 보다 신경을 써서 업체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2. 참가 적정성



참가 적정성 관련 설문 결과 그래프

행사 인지도/지명도에 대한 응답 결과는 높음과 낮음이 거의 비슷하여 4년째에 접어드는 이번 전시회가 아직 여타 전시회에 비해 인지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반면, 행사 전문성에 대한 평가는 61%가 높음 이상의 응답을 보여 전문 전시회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또한 경쟁 업체 및 유관 기관의 참여도에 대해서는 77%가 높음 이상의 반응을 보여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주관 기관의 바이어/참관객 발굴 노력에 대한 응답에서 보통이 67%의 응답을 보여, 보다 적극적인 바이어/참관객 유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행사 참여 필요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한 노력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YTN, KBS, SBS, 아이람 TV 등 주요 방송사와 IT 관련 신문사와 경제신문사, 인터넷 신문사들의 많은 관심으로 주관기관의 홍보 노력에 대하여는 61%가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다.

3. 차년도 참가여부

차년도 참가여부에 대하여는 66%정도가 적극 참여 및 참여할 의사를 보였으나, 초기 사업 계획 수립과 적극적 홍보 그리고 국내외 바이어들의 유치 강화 등을 통하여 경쟁/유관 업체 및 기관의 추가적인 참여를 더욱 도려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가업체의 종합의견으로는 "참여 기업이 예상보다 많지 않아 아쉬웠지만, 많은 업체들이 전시회를 알고 있었고 참가 후 많은 문의가 들어와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IT 경기가 되살아나면 많은 업체가 참석할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등의 긍정적인 의견과 "전시 서비스 부문을 강화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앞으로 전시회에 대한 건의 및 개선 요망 사항을 들 수 있었다.

IT SoC 2005계획

내년 전시회는 COEX 인도양 홀에서 11월 초 3일간 (11.3~5)의 일정으로 열릴 계획이며, 전시회 규모도 2배 정도 커질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 결과를 통해 쓴소리와 단소리를 발판삼아,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알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니 내년 'IT SoC 2005 및 차세대PC 산업전시회'가 얼마나 변화하고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지 기대해 볼적이다.